

자산관리 '맞춤형 교육' 인기

올들어 증권시장 호황 등으로 인해 개인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유관단체들이 증권과 금융 등 자산관리 교육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의 자산관리 교육은 체계적인데다 장애인, 탈북이주민(새터민) 등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외층의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립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 단체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거의 매달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제테크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대상

전국투자자교육협·증권에탁원 잇단 경제 특강

장애인·새터민 등 소외계층 투자문화 정립 기여

으로 '무료 여성 증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김병남연구원을 초청, '성공으로 가는 자산관리 및 내게 맞는 자산설계'라는 주제로 개인별 재산상태 진단과 함께 맞춤형 재무설계를 제공하고 국내외 펀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증시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이에앞서 지난 7월에는 자산관리 전문가와 증권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광주 장애인총연합회를 방문, 소속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8월에는 광주 전남 탈북이주민 지원센터를 찾아가 남한생활에 낯설은 탈북이주민 60여 명을 상대로 소중한 재산 관리법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실무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에도 나서 지난달에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과 전남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31사단과 상무대 간부 등 군인들을 상대로 퇴직후 자산관리

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증권에탁결제원 광주지원도 지난 26일 장성 월평초등학교 황통분교생을 대상으로 증권경제특강을 실시했으며 다음달까지 2~3개 초등학교에서도 증권경제특강을 하기로 했다.

또 전남대 경제학과와 법학과 학생에게 다음달 증권박물관과 화폐금융박물관 견학에 이어 증권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김춘희 사무국장은 "체계적인 투자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립은 물론 개인들을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소외층 교육을 통해 자산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배추에 귀하신 무'...올 김장 언제 할까

11월 중순이후 제격

무는 재배 면적 20% 이상 줄어
가격 강세 내년 설까지 지속될 듯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가 예년보다 2~3배 가량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김장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추와 무는 도매가 기준으로 작년 같은 시기 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평년의 2.5배 가량 수준이다.

사천계약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 배추와 무를 공급받는 대형마트들도 평년의 2배 안팎 수준에 이들 제품을 팔고 있다.

이날 현재 이마트는 배추가 1통

에 3천480원, 무는 1개당 2천480원이다. 홈플러스는 2kg 이상급 배추가 4천원선, 무 1개는 2천400원이다. 롯데마트도 배추 3천380원, 무 2천48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48.2%, 25.3% 값이 오른 상태다.

이처럼 배추와 무 가격이 된 것은 올해 8~9월 과잉재배가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육 초기에 많은 양이 유실됐기 때문이다. 재배 면적이 15~20% 가량 감소한 데다 9월 이후에도 일조량이 적어 출하가 가능한 정도로 속이 찬 물량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11월 이후 경기와 충청 이남 지역의 배추가 시중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품질도 좋아질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예년보다 7~10일 가량 늦은 11월 중순이후에 김장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무는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20% 이상 줄어 배추에 비해 감소폭이 크고 12월 중순에 출하되는 제주 지역 무가 최근 태풍으로 상당수 유실된 탓에 최근의 가격 강세가 내년 설까지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

증권사들 '자산관리' 선점 경쟁

잔고 211조1,000억 달해 인력확충·전담부서 신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자산관리(WM)가 선진 금융모델의 다른 한 축으로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의 간의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은 최근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종합 자산관리센터를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익증권판매 등 자산관리 잔고가 지난 25일 현재 211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10개 증권사의 지점수는 1천38개로 이를 지점당 자산관리 잔고는 평균 2천억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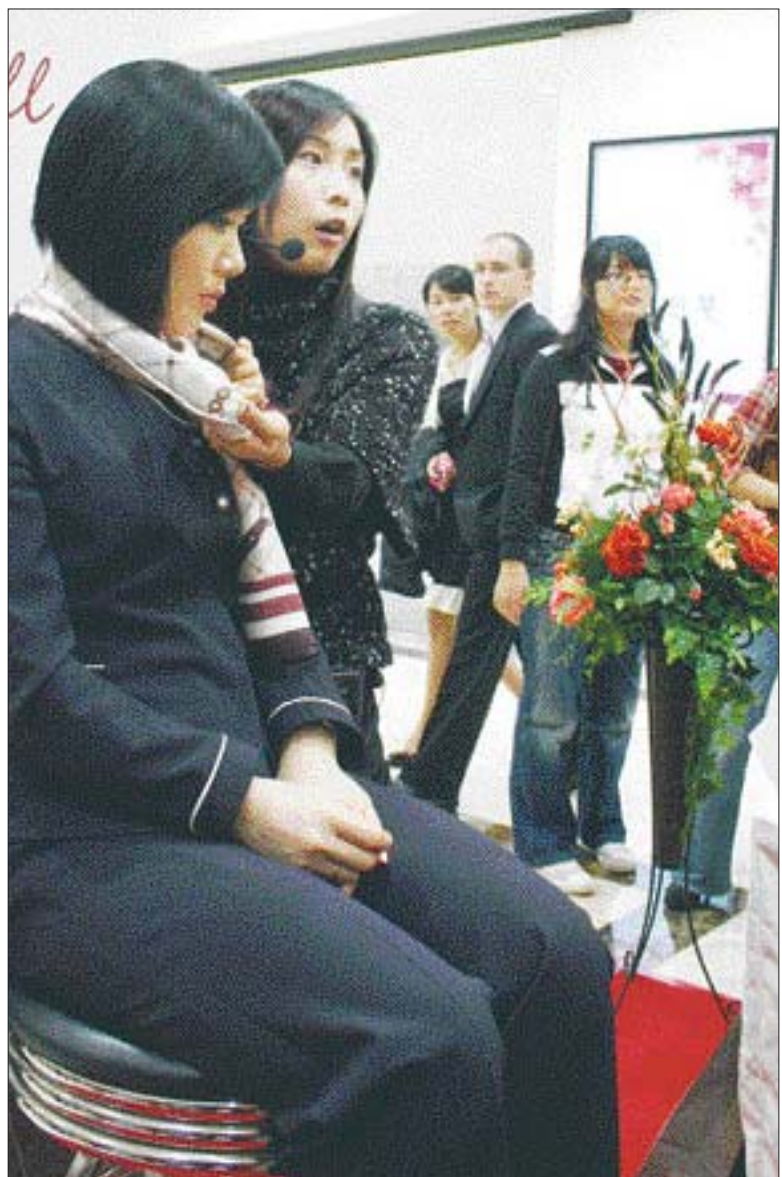
브로커리지와 투자은행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우증권은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달 들어 사내에 자산

관리 전략 기획과 직원 및 투자자 교육을 담당할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를 신설했고 서울 도곡동에 자산관리센터 1호점을 개설했다.

2004년부터 자산관리로 사업중심을 이동한 삼성증권은 지난 해 '자산클리닉'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올 1월 자산배분전략파트를 신설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토머니백'과 '육포' 등 선진금융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동양증권은 강점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영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대증권은 7월 자산관리영업본부를 신설했으며, 대신증권은 앞서 4월 자산영업본부를 WM영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연합뉴스



스카프로 멋 내세요

지난 2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겨울 패션 소품 코디쇼'에 참가한 한 여성 코디네이터가 스카프로 이용한 다양한 연출법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조선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

대한조선은 29일 해남군 화원면 해남조선소 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박재영 부회장과 김영록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3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육원 및 산업기술연구소 개원식을 갖는다.

1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기술연수생 172명은 입교식 후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인근 대불공단에 위치한 대한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전원에게 기술사와 훈련수당, 숙식이 제

공된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개원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서남권 일대 중대형 조선소 설립에 따른 관련인력 부족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그룹 계열 대한조선은 해남군 화원반도 일대 140만평 부지에 세계 정상급 조선클러스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 20개월만인 지난 8월 해남조선소 제1도크에서 옹골거치식(keel laying)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종태기자 jtleee@



내년 1월 선보일 '모하비' 실루엣.

기아차 HM차명 '모하비'로 결정

기아차는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HM차명 공모 이벤트에서 총 2만5천905명 중 1만 3천833명(53%)이 '모하비'를 선택해 경쟁차명이었던 윈드리버(15%), 오펠리아(27%)를 제치고 최종 HM의 차명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아차는 '모하비'라는 차명에 대해 'Majesty Of Hightech Active Vehicle(최고의 기술을 갖춘 SUV의 최강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차명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아차는 이날 차명과 함께 모하비에 적용될 차명의 자형을 공개했다. 모하비의 자형은 최고급 대형 SUV에 걸맞게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모하비는 내년 1월 고객에게 선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e@

광주 쌍촌동에 '상무 힐스테이트' 336세대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인근에 '상무 힐스테이트'아파트 336세대를 분양한다.

'상무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의 새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런칭 후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아파트로, ▲158㎡(148세대) ▲193㎡(143세대) ▲226㎡(45세대) 등이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광주지역 최초의 '유럽형 아트단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홍콩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인 LWK사가 외관 디자인을 맡았다.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더블정원시스템, 휘트니스센



터, 썬큰가든 등을 조성함으로써 입주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한다. 특히 단지 전체는 인근의 호남대 쌍촌캠퍼스 및 1만여평의 운천공원, 5·18 공원 등과 어울리는 '숲속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12월 사업지 인근에 들어선다. 문의 062-225-3115. /최경호기자 choice@

'평→㎡, 돈→g' 계량단위 전환율 81%

오랫동안 써온 '평'(면적), '돈'(귀금속 무게) 단위를 ㎡와 g 등 법정 계량단위로 전환하는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와 g 이외의 법정 계량단위 정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법정 계량단위 제도 및 단속 대상인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업체, 귀금속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와 g 단위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현재 81%로 두 달 전인 7월에 비해 6%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different areas like '신뢰와 감동의 여행사', '신도시', '유망', '인근', '대우', '대우', '대우'.